

# 英語와 韓國語의 語關係 論理性 比較研究

김재원

김재원\*

## 목 차

1. 序 論 文 章	5. 前置詞 - 冠詞 關係上의 論理性
2. 語關係의 核 動詞	6. 慣用的 表現에서의 論理性
3. 主語 - 動詞 - 目的語 關係上의 論理性	7. 기타 構造上에서의 論理性
4. 動詞 - (目的語) - 副詞(句) 關係上의 論理性	8. 結 論

## 1. 序 論

의미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에 비하여 영어는 볼 때 매우 논리적인 언어이다. 이러한 논리성의 차이로 인하여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모국어인들은 저마다 그 학습 대상어(target language)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영어의 경우에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간의 의미관계가 철저히 이성(理性)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다분히 감성(感性)에 근거하여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 이미 내재되어 있는 모국어에서의 사고의 틀이 매우 어려운 학습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영어가 이성적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간의 의미관계가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매우 논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김준기, 2004:49)<sup>1)</sup>,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그 의미적 논리성의 차이를 여러 가지 예문들을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영어학습상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 주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1) 그는 영어를 시각적 언어로, 한국어를 청각적 언어로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각적 언어 - 논리적, 분석적, 수학적 상황을 분석하여 원인 결과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요구함.

청각적 언어 - 직관적, 감정적, 예술적임. 상황 자체의 객관적 사실보다도 상황 속에 있는 음악, 미술적 요소로 심미적인 것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함.

히, 이 논문은 필자가 2003년 2005년 간에 영어 교양과목으로 가르쳤던 “한영 말하기/쓰기 연습” 과목에서 시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렸던 부분들을 골라서 예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대하게 되는 영어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와 영어간의 의미 논리성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2장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간의 의미관계에 있어서 외 언어보편적으로 동사가 그 관계상의 핵이 될 수밖에 없는 가를 간략히 설명하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런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영어와 한국어간에 빚어지는 의미적 논리상의 차이를 소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문장 속에서 동사의 의미영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의 부사구 안에서 전치사와 명사와의 의미적 논리성을 살펴보고, 6장과 7장에서는 그 외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관용적 표현과 기타 구문구조상에서의 논리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語關係의 核 -- 動詞

우리는 흔히 육하원칙(六何原則)인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입각하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서 주목해 볼 점은 그 원칙들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품사라고 생각하는 동사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동사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이며, 문법 안에서 다른 품사들과는 격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자가 어떤 상황을 인지하여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은 즉 “동사로 표현하라는 것”이며, 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동사에 다른 품사들을 필요한 만큼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더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각기 다른 품사들이면서 서로 함께 의미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동사라는 중심 축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품사들이 들어가서 붙게 되는 “비대등 주종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발화한 문장을 듣고 청자가 그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아래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동사의 의미라는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사들처럼 문장의 구조 속에 들어와야만 그 뜻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 got to the police station.(이르다)

She got first prize in the musical contest.(획득하다)

2) 그래서 영어의 경우는 동사를 “말을 한다”는 의미의 “verb”라고 하고 있다.

I got wet in the rain.(되다)

I got him to prepare for our journey.(시키다)

그러나 화자 중심으로 보는 청자 중심으로 보는, 문장 구조를 이루는 핵이 동사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어떤 식으로 보든, 동사를 제외한 다른 어구들의 의미는 모두 동사의 의미를 향하여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단어 들간의 논리적 의미관계를 설명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동사가 "--이다"라는 의미의 계사(copula)인 be동사를 제외한 "...을 하다"라는 일반동사에만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사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그 동사를 제외한 채로 주어와 보어와의 논리적 의미관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3)</sup>.

### 3. 主語 - 動詞 - 目的語 關係上的 論理性

#### 3.1 주어 - 동사 관계상의 논리성

날씨, 시간, 거리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비인칭(impersonal) it은 전통문법 안에서는 흔히 당위적인 용례로 간주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의 주어-동사 관계에서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논리성이 있다. (1)과 같은 경우에서 "cold"는 "your room" 자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your room" 안의 공간 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네 방 춥니?

Is it cold in your room?

Is your room cold? (\*)

생물 주어인 경우는 뒤따르는 동사와의 의미관계가 쉽게 정립될 수 있지만, (2)의 경우에서 보듯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는" 동작보다도 "전화 응답의 유무"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received" 대신에 "answered"로 표현되고 있다.

##### (2)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No one answered the phone.

No one received the phone. (\*)

무생물 주어에서는 주어-동사의 의미관계가 본질적으로 맺어질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3) 이런 경우는 "7장 관용적 표현에서의 논리성"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3)에서 보듯이, 논리적으로 볼 때 "ax"는 "trust"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도끼"는 "친한 친구" 등으로 바뀌어 비유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게 된다.

(3)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The trusted ax fell on my own feet.(\*)

My friend stabbed me in the back.

3.2 동사 - 목적어 관계상의 논리성

동사-목적어의 의미관계는 주어-동사의 의미관계에서보다 훨씬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4)에서 보면,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합의"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결과만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보다(see)"가 아니라 과정에서 결과까지를 표현하는 "이르다(reach)"가 "합의(compromise)"나 "동의(agreement)" 등과 결합되게 된다.

(4) 합의를 보다.

합의에 이르다.

They saw a compromise.(\*)

They reached a compromise.

(5), (6), (7) 에서의 동사 "avoided", "ask", "look for"는 정확한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answering the question"와 "directions", "clients"를 요구하고 있다. "그 문제(the question)"만에 대해서는 피할 이유가 없고, "길(the way)"이 아니라 "길의 방향(directions)"만이 "ask"와 "give"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물색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거래할 사람이지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5) 그는 그 문제를 피해갔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걸 피해갔다.

He avoided the question.(\*)

He avoided answering the question.

(6) 길을 묻다 / 길을 알려주다

길의 방향을 묻다 / 길의 방향을 알려주다

ask the way / give the way (\*)

ask directions / give directions

(7) 거래처를 물색하다.

look for places (\*)

look for clients

(8)에서는 “잘못”이 무엇에 대한 잘못된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 한국어에서는 “잘못”이 “타다”와 “걸다”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잘못”의 초점이 “버스”나 “전화번호”에 주어지면서 양자간의 논리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8) 버스를 잘못 타다

전화를 잘못 걸다

dial the wrong number

take the wrong bus

(9)-(12)는 표면적인 동작보다는 근본적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들인데, (9)에서는 “채소를 다듬는” 것이 “요리를 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prepare”로 표현하고 있고, (10)-(12)에서도 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릇”, “마개”, “주파수” 등이 영어로는 표현되지 않고 있다.

(9) (요리를 하기 위해) 채소를 다듬다.

trim the vegetables(\*)

prepare the vegetables

(10) 웨이터가 그릇을 치워가다<sup>4)</sup>.

The waiter clears the table.

(11) 병 마개를 따다.

open the bottle

(12) (라디오 소리가 잘 나오도록) 주파수를 맞추다.

tune the radio

(13), (14)는 한국어와 영어 단어들의 의미영역이 다른데도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잘못 표현되는 경우들이다. 한국어 동사 “돌리다”, “찍다” 등은 “건내다”, “추측하다” 등의 뜻을

4) 여기서는 새로운 손님들을 받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된다.

함의하고 있지만, 영어 동사 "turn", "poke" 등은 "pass", "guess" 등의 뜻을 함의하고 있지 않은데도, 한국어에서처럼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이런 경우는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관계를 연결시켜 볼 때 영어의 "pass a glass"와 "guess answers"가 한국어의 "술잔을 돌리다"와 "답을 찍다"보다 훨씬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3) (술을 마시며) 주위로 술잔을 돌리다.

(술을 마시며) 주위로 술잔을 건내다.

turn a glass around (\*)

pass a glass around

(14) 답을 찍다.

답을 추측하다.

poke answers (\*)

guess answers

(15), (16)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할 때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이다. 이 때에도, 잠을 잔다는 실제적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pull up the covers", "use a pillow"가 단순히 어떤 동작만을 표현하고 있는 "cover myself with a blanket", "put a pillow under my head"보다 훨씬 논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5) (자면서) 이불을 덮다

(자면서) 이불을 덮어주다

pull up the covers

cover myself with a blanket (\*)

cover him with a blanket

(16) (자면서) 베개를 베다

베개를 베어주다

use a pillow

put a pillow under my head (\*)

put a pillow under his head

(17), (18)에서는 동사-목적어 의미관계로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세세한 의미를 부사나

진치사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17)에서는 "off"를 통하여 손가락이 잘려 떨어져 나갔는가의 여부를, (18)에서는 "out"을 통하여 환기의 본질적 의미가 "밖의 공기를 안으로 들이는 것"보다는 "안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는 것"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7) 손가락을 자르다

cut my finger (with a knife)  
cut off my fingers (with a knife)

(18) 방을 환기시키다

air out the room

## 4. 動詞 - (目的語) - 副詞(句) 關係上的 論理性

### 4.1 동사 - 목적어 - 부사(구) 관계상의 논리성

동사-목적어-부사(구) 관계상에서의 논리성 논의는 주어-동사나 동사-목적어 관계상에서 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19)에서는 동사(receive, fill) - 목적어(water) - 부사구(in the bathtub) 관계상에서 영어는 왜 "fill"만 허용되느냐가 초점이 되는데, 그 이유는 "bathtub"이 "basin"이나 "bowl" 등과는 달리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receive"가 아니라 "fill"만이 "water", "in the bathtub"과 논리적 관계가 형성된다.

(19) 욕조에 물을 받다

욕조에 물을 채우다  
receive the water in the bathtub (\*)  
fill the tub with water

그리고 (20)에서는 동사(add) - 목적어(apple) - 부사구(to the salad) 관계상에서 "many salad"가 아니라 "more salad"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초점인데, 일반적으로는 가산 명사로만 쓰이는 "사과"이지만 "샐러드"에 첨가될 때에는 사과와 동그런 형체가 없어지고 채로 잘게 썰리면서 불가산 명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20) 샐러드에 사과를 더 넣다

add many apples to the salad (\*)

add more apple to the salad.

그러나 (21)에서는 (20)에서와는 반대로, 동사(brush off) - 목적어(hair, hairs) - 부사구(with a sponge)관계상에서 일반적으로는 불가산 명사로만 쓰이는 "hair"이지만, 스펀지로 털어 낼 때에는 몇 가닥인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가 되어버리고 있다.

(21) 스펀지로 머리카락을 털어 내다

brush off the hair with a sponge (\*)

brush off the hairs with a sponge

4.2 동사 - 부사(구) 관계상의 논리성

(22)에서는, 동사인 "walk"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동사(walk) - 부사구(along the riverside) 관계로만 나타난다. 그리고 (23)에서도, 한국어에서는 "선풍기를 켜다"가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cool off in front of a fan(선풍기 앞에서 더위를 식히다)"만이 가능하게 된다.

(22) 그는 강변을 걸었다.

그는 강변을 따라서 걸었다.

그는 말들을 냇가로 데리고 갔다.

He walked the riverside. (\*)

He walked along the riverside.

He walked his horses down to the stream.

(23) 선풍기를 켜다

선풍기 앞에서 더위를 식히다.

cool off in front of the fan

(24)에서도, 영어에서는 "I heard him say(그가 말하는 걸 들었다)"에서의 "hear"와는 다르게 신경을 집중하여 듣는 "listen"은 "to a lecture"와 같은 부사구와 결합될 때만 의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열심히(hard)"와 "주의깊게(carefully)"라는 부사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는 둘 중 어떤 부사를 사용하든 별다른 의미 구별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주로 능동적 행위자에 대해서만 "hard"란 표현을 사

용하고 있다.

(24) 강의를 열심히 듣다

강의를 주의깊게(꼼꼼히, 신중히) 듣다

listen carefully to a lecture

listen hard to a lecture (?)

선생님은 강의를 열심히 했다.

우리는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우리는 강의를 주의깊게(꼼꼼히, 신중히) 들었다.

Our teacher lectured hard.

We listened carefully to a lecture.

(25)의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도 “홀짝”이라고 하지 않고 대개는 “홀짝 홀짝”이라고 표현하듯이 영어에서도 “sip”이 아니라 “sips”라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25) 술을 홀짝 마시다 (?)

술을 홀짝 홀짝 마시다<sup>5)</sup>

drink in little sips

그리고 (26)에서의 “up”은 “무대”가 평면보다 높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올라”가 있든 없든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up”이 없으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26) 무대에 서다

무대에 올라서다

go on the stage(?)

go up on the stage

(27)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up(-쪽으로)”이 있어야만 정확한 표현이 된다.

(27) 차가 후진하다.

차가 벽 쪽으로 후진하다.

5) 이것은 한국인들도 은연중에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The car backs.(?)

The car back up (to the wall).

## 5. 前置詞 - 冠詞 關係上的 論理性

4장에서는 동사와 함께 의미관계를 형성하는 부사구의 예들을 살펴보았지만, 동사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부사구 안에서의 전치사 관사도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의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도 예문들에는 동사-부사구의 구조로 설명하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의 동사들은 다른 동사들로 대체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4장에서의 동사 부사구에 대한 논의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28)에서 보면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bus"가 보통명사인가, 대표단수를 나타내고 있는 추상명사인가를 분명히 구별하여 전자에서는 "in a bus(버스를 타고)", 후자에서는 "by bus(버스 편으로)"로 엄격히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sup>6)</sup>.

### (28)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다

버스 편으로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in a bus

go to school by bus

그래서 (29),(30) 보듯이, "우편"이 대표단수로 처리되는 (29)는 옳은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보통명사로 처리되는 (30)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 (29) send it by express mail

by regular mail

by registered mail

### (30) send it in a express mail (\*)

in a regular mail (\*)

in a registered mail (\*)

6) 일반적으로 볼 때 전치사 "in"은 그 다음에 보통명사를 원하고 있고, "by"는 추상명사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에서 보면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방법에만 "in"을 사용하고 있고, 이 때도 "in a cash"가 되어야 하지만 "cash"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거부하게 되어 "in cash"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31) pay by check**

pay by credit card  
 pay in a cash (\*)  
 pay in cash

(32),(33)는 (25)에서처럼 반드시 복수명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영어는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아주 사소한 표현에서도 철저하게 논리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32) 차례로 노래하다**

차례 차례로 노래하다  
 차례들로 노래하다 (\*)  
 sing in turn (\*)  
 sing in turns

**(33)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간다.  
 go to church on Sunday  
 go to church on Sundays

## 6. 慣用的 表現에서의 論理性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문장들 속에 있는 구조적 의미관계의 논리성을 살펴보았지만, 항상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 등의 관용적 표현<sup>7)</sup>에서도 영어는 엄격히 논리성을 준수하고 있다.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34)에서는 "모르는 것"이 "다행"이나 "복"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치료 기능을 가져야만 하는 "약"이 될 수는 없으며, (35)에서도 정확한 의미관계에서 보자면 "시장기"는 "반찬"의 역할이 아니라 "양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여기에 소개된 3개의 속담은 Dunham(1992:30,106,138) 참조

(34) 모르는 게 다행

모르는 게 약

Ignorance is medicine.(\*)

Ignorance is bliss.

(35) 시장기가 반찬

시장기가 양념(\*)

Hunger is the best side dish.(\*)

Hunger is the best sauce.

(36)에서는 장소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Where’s here?”는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없고, (37)에서는 “눈”이 “눈(eyes)”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각 내지는 관점(eye)”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이 단수 명사로 처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6) 여기가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 거야?

Where is here? (\*)

Where am I ?

(37) 재 눈에 안경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

(38)에서는 “입사하다”가 “회사에 들어간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enter”를 쓸 수 없으며, (39)는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손실을 낸 항목들과 이익을 낸 항목들이 각기 여러 항목들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로 처리해야 하고, (40)에서는 “양지”와 “음지”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41)에서는 “양손” 모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복수 명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8) 입사하다.

enter a company (\*)

start working at a company

(39) 손익을 계산하다.

calculate profit & loss (\*)

calculate profits & losses

(40)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Life is full of up and down. (\*)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41) 실습하다.

get hand-on experience (\*)

get hands on experience

## 7. 기타 構造上에서의 論理性

그밖에도, 영어는 의미관계상의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42), (43)에서처럼 능동적-수동적 의미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42) 전근 가다

전근 되다 (?)

be transferred to another branch

(43) (의사가) 충치를 뽑다

have(get) my decayed tooth pulled out

본동사가 to-부정사나 원형부정사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국어에 비해 영어는 매우 논리적으로 의미 구분을 하고 있다. (44)에서 보듯이, to-부정사의 상황은 본동사보다 미래의 상황을 뜻하며 원형 부정사의 상황은 본동사의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8)</sup>.

(44) 공부하는 걸 도와주다

help me study(공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다)

help me to study(공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다)

8)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등에서 원형 부정사를 취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이 본동사와 원형부정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도와주다

help me serve

help me to serve (?)

영어에서는 상(相)도 동사를 보조하면서 의미 구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45),(46)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부사(구)를 통하여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의미 구분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구분하기 위하여 원천적으로 표현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45) 나는 낚시를 가곤 했다.

I would<sup>9)</sup> go fishing. (불규칙적으로)

I used to go fishing. (규칙적으로)

(46) 나는 미국에 있었던 적이 있다.

I used to be in America. (과거 한 때)

I have been in America.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 8. 결 론

이 논문은, 지금까지 많은 영어교사나 영어학습자들이 영어가 한국어에 비하여 매우 논리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떻게 논리적인가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생각해보다가 그쳤던 부분들을 실제적 예문들을 통하여 구체화시켜 보려는 시도였다. 문장 어관계의 핵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중심으로 의미관계의 논리성을 살펴보고, 또한 기능적 동사인 be-동사가 나타나는 경우나 시제, 상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지만 관용적 표현상에서도 영어는 엄격한 논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쓴 문법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영어 원어민들이 쓴 문법서들도 아직도 대부분은 규범문법적으로만 기술되어 있는 바, 영어학습자들이 언어현상도 당위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문법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논문에서처럼 어관계상의 의미 논리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간다면 시제나 상, 그리고 설명하기 까다로운 관사까지도 쉽

9)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표현하는 데에 "would"를 쓰는 것은 "마음이 내킬 때"는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축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게 설명해낼 수 있는 좋은 문법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결론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쓰면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영어가 세계어가 되어 있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어가 이 논문의 주제인 “의미관계상의 논리성”을 엄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가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하거나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한국어와 같이 감성적이고 논리성이 약한 언어는 한국에 와서 오랜 세월동안 살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여간해서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Dunham, D.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시사영어사. 1992
- Jespersen, O.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4.
- 고경환. 실용영문법해설(2).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 구학관. 영어유감. 글맥. 1997.
- 김준기. 상황영어. 새빛출판사. 2003.
- 양용준. 상의 유형과 용법. 온누리 도서출판. 2005.
- 이기동. 영어 동사의 의미(하). 한국문화사. 1995.
- 조성식. 고등영문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